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273-314  
<https://doi.org/10.29212/mh.2019..110.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이순신 해외 전파의 연결고리: 제임스 머독의 <일본의 역사>

석영달\*

1. 들어가며
2. 머독의 생애와 일본사 집필의 계기
3. 머독의 일본사 서술 재평가와 이순신-넬슨 담론
4. 머독 커넥션 : 이순신 해외전파의 연결고리
5. 나가며

###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역사학이 오랜 세월 동안 ‘숭고한(noble)’ 학문으로 대접받아왔던 것은 역사학 그 자체가 갖는 학문적 가치와 성과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민족주의 역사학’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민족주의 역사 서술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과 같은 수사(rhetoric)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을 때 국민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역사 서술에서도 유사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이뤄지던 20세기 초의 역사서술에서 여러 ‘민족영웅 담론’으로 발현되어 나타났다.

이 시점에 주목받았던 여러 민족영웅 가운데 ‘이순신’은 당시 조선의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인물이었다. 일제 강점기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직접적으로 침략의 당사자인 일본과 싸워서 이긴 인물인 이순신은 ‘민족의식 고취’라는 대의에 가장 잘 부합했다. 때문에 당시의 민족 영웅 담론에서 이순신은 다른 영웅들보다 더욱 부각되어 다뤄졌고, 이런 담론 속에서 신채호, 박은식 등의 글을 통해 ‘조선의 영웅 이순신과 영국의 영웅 넬슨(Nelson)의 비교’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도가 등장하게 된다.<sup>1)</sup>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하는 담론이 단지 ‘민족주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던 조선의 역사가들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구도는 이미 조선의 민족주의 역사서술 이전부터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서양의 역사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국내에서는 이런 ‘외국의 시선에서 쓰인 역사’를 근거로 하여 ‘이순신과 넬슨의 비교’를 우리의 입맛대로, 때로는 다소 우쭐해하며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내에 “외국에서도 이순신이 넬슨과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라는 인식이 거의 굳혀져있는 상태이다.<sup>2)</sup>

물론 이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의, 특히 일본과 영미권의 여러 학자들이 이순신

1) 노영구, 「[영웅만들기]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통권 69호(2004), pp. 348-350.

2) 이순신-넬슨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제38집(2017)을 참고할 것.

이라는 인물이 남긴 업적과 그의 역량에 대해 연구하고 높이 평가 하였으며, 넬슨을 인용하며 이순신에 대해 서술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이순신이 해외에서 넬슨과 동등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식의 일반화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것이 ‘세계 4대 해전’과 같은 근거 없는 담론의 등장이나,<sup>3)</sup>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Tōgō Heihachirō)가 스스로를 “넬슨과는 비교할 수 있지만, 이순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재생산하는 배경이 되어서도 안 된다.<sup>4)</sup>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의 학계나 언론에서는 서구의 과거 문헌들에서 얼마나 이순신을 대단한 영웅으로 그려냈는지를 번역, 나열하는 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sup>5)</sup>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이순신이 왜 그러한 구도로 서술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이, 그것을 맹목적으로 ‘이순신에 대한 찬사’로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서양에서 바라본 이순신’이라는 연구 갈래에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서양의 이순신 관련 저술들을 들여다보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한 국사를 최초로 영어로 저술한 미국인 학자 호머 베잘렐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의 서술, 그리고 ‘이순신-넬슨’ 비교로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영국의 해군 장교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George Alexander Ballard)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3)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한 논의는 석영달,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한 고찰 - 국내의 ‘세계 4대 해전’ 담론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군사』 제101호(2016)를 참고할 것.

4) 이소오의 이순신에 대한 언급과 관련한 논의는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재』 제4호(2011), pp. 215-220을 참고할 것.

5) 국내의 학계에서 이뤄진 ‘서양에서 바라본 이순신’ 관련 연구 중 김주식의 논문은 이순신을 언급한 서양 학자들의 계보를 정리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만 그 학자들의 텍스트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조덕현의 논문은 김주식의 논문에서 미국 학자들과 관련된 내용만 간추려 정리하고 좀 더 보완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학문적 가치를 논하기는 어렵다.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2011); 조덕현, 「미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순신 제독」, 『이순신연구논총』 통권 제27호(2017).

관련 내용을 재조명해보았다.<sup>6)</sup>

그런데 이처럼 ‘서양의 이순신 서술’이라는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헐버트와 벨러드라는 인물 사이에는 오랜 세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중요한 미싱 링크(missing link) 하나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스코틀랜드인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 1856-1921)이라는 인물이다. 머독은 1903년부터 3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일본사 저서를 차례로 발간하면서 그 속에서 헐버트와 벨러드 못지않게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자세히 다루었다. 머독의 일본사 3부작 가운데 2권에 해당하는 책에서는 임진왜란이 6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에 걸쳐 서술되었으며,<sup>7)</sup> 이것을 헐버트와 벨러드의 글과 함께 살펴보면 머독이 헐버트의 글을 인용하였고 훗날 벨러드가 머독의 글을 인용하였다는 명확한 연관 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는 이순신의 해외 전파와 관련하여 머독이 앞의 두 학자와 주고받은 영향이나 그의 저술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sup>8)</sup>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6) 이 두 명의 학자들은 이순신과 임진왜란 속 해전에 대해 자세히 다루면서 이순신의 역량을 벨슨과 비교하며 극찬하였다는 이유로 국내의 이순신 연구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들이 이순신에 대하여 서술한 동기와 텍스트에 담긴 함의 등은 이전까지 다루지 않았다. 여기서 필자의 두 연구의 핵심은 이 두 서양인이 단순히 이순신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술 목적에 맞게 이순신을 적절히 전유(appropriation)했음을 보이고자 한 것이었다.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2016); 석영달, 「세계 속의 충무공 읽기-호머 헐버트의 이순신 관련 서술들을 중심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제3호(2016)을 참조.

7) 2권에 해당하는 책은 총 74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임진왜란이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다루지고 있다.

8) 일본에서는 머독이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Natsume Soseki)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으며, 머독의 생애에 대해 히라카와 스케히로(平川祐弘, Hirakawa Sukehiro), 스기야마 타마키(杉山環, Sugiyama Tamaki) 등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도 머독의 이순신 관련 서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平川祐弘, 『漱石の師マードック先生』(講談社学術文庫, 1984); 杉山環, 「James Murdoch-1-書誌的研究」, 『岡山商大論叢』 18 (1983); 杉山環, 「James Murdoch-2-書誌的研究」, 『岡山商大論叢』 19 (1983) 등을 참조.

국내의 연구들 가운데 ‘서양에서 바라본 이순신’이라는 주제의 가장 초창기 연구로 손꼽히는 김주식의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는 머독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은 하고 있으나, 머독과 그의 서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오히려 김주식은 이 글에서 머독과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다소 오해를 가져다 줄 소지까지 남기고 있다. 그 중 특히 머독이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다룬 일본사를 서술할 때 1905년에 출판된 헐버트의 책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머독의 책이 헐버트의 책보다 오히려 2년 더 이른 1903년에 출판되었다는 의문은 독자들에게 큰 혼동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머독이 책을 쓰면서 대부분 일본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는 주장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sup>9)</sup>

그리고 국내에서 머독이 평가절하 받아왔던 또 다른 이유인, 일제 치하 통감부의 기관지 『서울프레스』(*The Seoul Press*) 사장이었던 야마가타 이소오(山縣五十雄, Yamagata Iso, 1869-1959)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편향적으로 역사를 서술했다’는 부분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sup>10)</sup> 머독의 역사 서술 과정에 있어 이소오라는 인물이 마치 그의 보조처럼 언급되고, 이소오가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머독의 글에 이소오의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이순신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에서 소외되거나 오해를 받아 왔던 머독의 존재와 그의 저술의 가치에 대해 분명히 밝히면서 ‘헐버트-머독-밸러드’로 이어지는 이순신의 해외 전과 계

9)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p. 15.

10) 명지대학교도서관 한국관련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 「<A History of Japan> 해제」 (접속일: 2019. 1. 10. URL: [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성웅 이순신-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서울: 용화출판사, 2005), p. 21.

보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당시에 머독이 어떤 상황에서 일본사 집필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본사 속에서 이순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볼 것이다. 또한 이소오와의 관계와 그로부터 받은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며 머독의 일본사 서술이 ‘일본인 조수에 도움을 받고, 일본의 자료로만 서술된, 오류가 많은 역사’ 정도로 치부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머독이 남긴 3권의 일본사 저서 『일본의 역사 I, II, III』(*A History of Japan Vol. I, II, III*)<sup>11)</sup>와 머독의 저서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리뷰 등을 살펴보면서 논지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는 머독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다루면서 그가 일본으로 가게 된 배경과 일본사 집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일본사를 서술해 간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의 일본인 조수였던 이소오와의 관계 역시 함께 다룰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머독의 저서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이 책이 쓰였던 시점에 일본 내에 성행했던 담론들과 책 내용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헐버트, 벨러드의 글과 머독의 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머독의 저술이 이순신의 해외 전과 과정에서 갖는 함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11)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Kobe: The office of the “Chronicle”, 1903);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D. Vol. I* (Yokohama: Kelly & Walsh, Ltd., 1910);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26).

## 2. 머독의 생애와 일본사 집필의 계기<sup>12)</sup>

### 영국에서의 머독의 삶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 1856-1921)은 1856년 9월 27일 스코틀랜드 킨카딘셔(Kincardineshire, 현재의 스톤헤이븐 인근) 페테레소(Fetteresso) 교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머독(William Murdoch)은 농가에 고용된 가난한 농부(farm servant)였으며,<sup>13)</sup> 어머니 헬렌(Helen)은 머독이 태어난 지 10달 만에 결핵으로 사망했다. 머독의 유년시절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알 수는 어렵지만, 이러한 출생 배경만으로도 그의 유년기가 그다지 평탄하지는 않았음은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어려운 유년기 시절을 겪으면서도 머독의 학업에 대한 열망은 컸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일을 돕느라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유명했던 머독은, 11살이라는 다소 늦

12) 머독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데이비드 칼라일 스탠리 시슨스(David Carlisle Stanley Sissons)의 머독의 일생에 다룬 논문과 제임스 머독의 『일본의 역사』 3권의 서두에 실린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을 참고하였다. 『일본의 역사』 3권 서두에 실린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의 경우 이 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머독이 작고하여, 조셉 헨리 롱포드(Joseph Henry Longford)와 L. M. C. 홀(L. M. C. Hall)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롱포드나 홀, 혹은 그 외의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1856-1921) - Historian, Teacher and Much Else Besides,”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2(1987);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ed. Joseph Henry Longford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26), pp. vii-xvi.

13)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vii.

14) 가난한 농민의 집안이었던 머독의 집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머독이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몇 달 이후에 써냈던 짧은 이야기인 『웹스터의 구애』(*The Wooing of Webster*)에는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추측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머독은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프란시스 웹스터(Francis Webster)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 Sissons, “James Murdoch,” pp. 2-3.

은 나이에 페테레소 교구 학교의 학생이 되었고,<sup>15)</sup> 올드 애버딘 (Old Aberdeen)의 문법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때 머독은 문법학교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애버딘 대학(the University of Aberdeen)<sup>16)</sup> 입학에 위한 장학 시험 (Bursary examination)을 준비하는데, 그는 이 시험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sup>17)</sup>

대학 시절에도 머독은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리스어나 라틴어, 영어, 고전학 등에서는 독보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이처럼 언어와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머독이 보여줬던 능력은 훗날 그가 고대 일본 사료를 직접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일본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애버딘에서 훌륭한 학생으로 인정받은 머독은 장학금의 혜택과 함께 좀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잉글랜드의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기회를 잡았다. 머독은 1879년 10월 전도유망한 몇몇 스코틀랜드 학생들과 함께 옥스퍼드로 가게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우스터 칼리지(Worcester college)에 등록하였다.<sup>18)</sup>

그러나 머독이 옥스퍼드에서 보낸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는데, 첫째로 옥스퍼드에서 애버딘보다 크게 더 배울만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고,<sup>19)</sup> 둘째로 1880년 6월 목사의 딸이었던 루시 파크스 (Lucy Parkes)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학생의 신분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했던 머독에게 옥스퍼드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은 사치였고, 곧 아이가 태어나게 될 상황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애버딘으로 돌아와 그리스어 수업의 조교를 맡아 생계를 꾸리게 된다.<sup>20)</sup> 그리고 머독은 제대로

15)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vii.

16) 애버딘 대학은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으로 평가되었다.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viii.

17)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4.

18)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5-7.

19)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viii.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오스트레일리아의 학교에서 선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1880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Queensland) 동부 항구도시인 메리보로(Maryborough)의 새로 생긴 문법학교에서 낸 교장 구인 공고에 지원하였고, 1881년 3월 임용되었다는 전보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머독의 본격적인 해외 생활이 시작된다.<sup>21)</sup>

### 해외에서의 머독의 삶

머독은 1881년 7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메리보로에 도착하여 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주 이전에 교장 임용 공고에서 읽었던 “성직자나 목사는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반교권주의(anti-clericalism) 및 불가지론(agnosticism)의 입장이었던 머독에게 종교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그곳에서 지낼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게 했었다. 하지만 그곳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머독은 종교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로 보수적인 지역사회와 부딪쳤고, 부임한 지 불과 3년 6개월이 된 시점인 1885년 2월 첫째 주에 “그 해 6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임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학교의 이사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 달인 3월에 머독을 해임했다. 이 해임의 표면적인 이유는 학교의 교직원 구성에 있어 머독이 이사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의 무신론적인 성향과 부인과의 원만하지 않

20) 1881년 4월 머독의 아들인 케네스 맥도날드 머독(Kenneth Macdonald Murdoch)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결혼 직후 부인 루시가 임신하게 되었고, 머독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가정생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8;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viii.

21)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7-8.

은 관계 등으로 인해 그를 학교의 교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sup>22)</sup>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부인과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는 이후 머독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메리보로에서 해임된 후 브리즈번(Brisbane)의 문법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된 머독은 지난 학교에서 처럼 자신이 맡은 임무는 훌륭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그는 가정에서의 행복은 찾지 못했는데, 1888년 머독은 돌연 브리즈번의 일을 관두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고 이 여행에 그의 부인은 동반하지 않는다. 이 여행이 부인과의 힘든 관계를 잠시 떠나고 싶었던 것인지, 혹은 아예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나 일본에 정착할 것을 계획하고 시작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점 이후 머독이 부인과 다시 만났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이후 머독의 생애에서 부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여행이 그가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명확하다.<sup>23)</sup>

이때 머독이 일본을 여행지로 선택한 것은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의 여행 경향을 고려할 때 꽤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일본 여행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는데, 머독이 저널리스트로 몸담고 있었던 브리즈번 지역의 급진주의적인 성격의 주간지 『부메랑』(*The Boomerang*)의 관계자들이 머독의 일본 방문을 전·후로 하여 대부분 일본을 다녀왔던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sup>24)</sup> 머독이 이 『부메랑』의 관계자들과 평생 동안 꾸준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머독의 일본 여행 결

22)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8.

23) 이후 머독의 부인은 장례식이나 사망 신고의 기록도 없이 머독의 인생에서 사라진다. 머독의 부인에 대한 언급은 머독의 친구이자 과거 그의 학생이었던 야마가타 이소오가 ‘그녀가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을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 전부이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10.

24) 머독은 메리보로에서 지역 신문에 프리랜서로 글을 쓰던 경험을 살려 브리즈번에서도 급진적인 주간지 『부메랑』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10, 15.

정에 그들의 권유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일본을 방문한 머독이 그곳에서 받은 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만연해있었고 머독 역시 그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흥미로운 부분이다.<sup>25)</sup> 머독은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에 만연했던 우생학적인 견해나 인종차별적인 사고에 상당히 동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그의 서술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sup>26)</sup> 하지만 그의 일본에 대한 표현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추함(Ugliness)에 대한 느낌에 있어서도 중국의 추함이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일본의 추함은 그에게 연민을 자아내는 것이었다.<sup>27)</sup> 일본에서의 생활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머독은 결국 도쿄의 고등학교(Higher School)에서 유럽사를 가르치는 교사 자리를 구하고 일본에 영구히 정착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후 머독은 브리즈번으로 잠시 돌아가 그곳에서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아들만 동반하여 1889년 7월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다.<sup>28)</sup>

머독이 일본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1890년대는 메이지 유신(1868) 이후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한껏 받아들이고 있던 때였다. 당시 일본에서 머독과 같은 유럽인 교사는 훗날 제국을 경영하게 될 우수한

---

25) 중국인에 대한 머독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그의 글을 하나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창살이 없는 중국 창문에 철봉을 꽂으면, 먹이를 주는 시간에 동물원의 원숭이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를 따라 걷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하얀 이빨을 지닌 황갈색의 유인원처럼 보이는 것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의자와 나무 덩어리에 웅크리고 앉아, 열심히, 그리고 게걸스럽게 더러운 기름투성이의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지저분한 한 쌍의 뜨개질바늘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구멍으로 쑤셔 넣는다. 그들은 마치 잔뜩 먹어야 하는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목구멍 가까이에서 그들의 접시를 붙잡고 먹는다.” James Murdoch, *Boomerang*, 9. June. 1888,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13에서 재인용.

26)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13-16.

27)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17.

28)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xi;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19.

일본 학생들이 유럽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귀한 존재였다. 때문에 머독은 동료 일본 교사들의 10배에 달하는 봉급을 받으면서 그의 생애에서 거의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이런 환대는 그에게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소설가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Natsume Sōseki, 1867-1916)나, 앞서 언급했던 야마가타 이소오와 같은 총명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로서 상당한 보람도 느꼈을 것이다.<sup>29)</sup>

이런 만족스러운 일본 생활 속에서 머독은 다양한 저술 활동을 계획하는데, 그의 초창기 저술은 많은 오리엔탈리스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양을 배경으로 한 전형적인 소설이었다. 이러한 동양 배경 소설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서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역하면서 유럽 내에 유행하게 되었던 자포니즘(Japonism)의 영향과 함께 성황리에 소비되었다. 그리고 이런 동양 배경 소설의 흥행은 머독이 일본 관련 저술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sup>30)</sup>

그러던 와중에 1893년 머독은 주간지 『부메랑』의 동료였던 윌리엄 레인(William Lane)의 요청으로 파라과이에서 펼쳐진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인 ‘뉴 오스트레일리아 협동 정착 협회(New Australia Cooperative Settlement Association)’에 참여하게 되어 파라과이를 방문할 기회를 얻는다. 이 운동의 목적은 파라과이 정부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그곳에서 생산 수단과 수익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랫동안 머독이 『부메랑』에 몸담으면서 공유했던 정치적 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sup>31)</sup> 하

29)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20.

30) 실제로 머독의 초창기 저서 중 『호주와 일본으로부터』(*From Australia and Japan*, 1892)는 출판된 이후 3권의 얇은 페이퍼백(Paper-back) 판형으로 재출판되어 인도, 호주 등에서도 판매되었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22.

31)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xii; D. C. S. Sissons, “James

지만 레인이 초기에 보여줬던 평등주의적 지도자의 모습에서 독재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그 와중에 공동체의 앞날을 종교적인 영감에 따라 좌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머독은 이에 실망하여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sup>32)</sup>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파탄에 이른 결혼생활과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한 문제 등을 정리하기 위해 런던에도 잠시 들리게 된다.<sup>33)</sup> 여기서 머독은 자신의 향후 저술활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런던의 영국 박물관(the British Museum)에 방문하여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남긴 일본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면서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그리고 특히 일본의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저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sup>34)</sup>

잠시 일본을 방문하고 체험했던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남긴 기록들은 일본에 오랜 세월 거주하면서 일본을 실제로 느끼고 이해한 머독의 경험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참고한 자료나 글의 수준 역시 머독에게는 대단치 않아 보였을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물들이 자포니즘의 성행과 함께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은<sup>35)</sup> 머독에게는 상당한 자극이었을 것이다. 이에 머독은 마치 일본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과 저술활동을 결심한 것처럼 런던에서 5개월 동안이나 머무르며 영국 박물관에 있는 대부분의 유럽 자료들을 섭렵하고 수집하여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다.<sup>36)</sup>

그리고 1899년 오카다 타케코(Okada Takeko)라는 일본인 여성

---

Murdoch," p. 29.

32)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xii

33)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29-30.

34)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32-34.

35) 그 예로 어니스트 W. 클레먼트(Ernest W. Clement)의 『근대 일본에 대한 편람』(*A Handbook of Modern Japan*)은 영국에서 첫 출판 이후 9쇄까지 발간되며 꾸준히 소비되었다. Ernest W. Clement, *A Handbook of Modern Japan* (Chicago: A. C. McClurg & Co., 1913)을 참조.

36)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33.

과 결혼하여 일본에서의 삶에서 완전한 안정을 찾은 머독은 1900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과 러시아」(“Japan and Russia in the Far East”)<sup>37)</sup>라는 글을 영향력 있는 저널인 『북아메리카 리뷰』(*North American Review*)에 실으면서 본격적인 ‘일본 연구가’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내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글에 좋은 인상을 받은 런던의 『타임즈』(*Times*)측에서 머독에게 일본 특파원(Japan correspondent) 자리를 제안할 정도였다.<sup>38)</sup> 그리고 이런 『타임즈』와 같은 공신력 있는 언론의 인정은 머독에게 자신의 글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과 확신을 부여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머독은 1901년 건강 문제로 인해 좀 더 온화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기후인 큐슈 지방의 가고시마에 있는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렇게 생활의 안정을 이루고 일본 연구에 대한 동기 부여가 제대로 이뤄진 이 시점부터 머독은 그의 본격적인 일본사 저술을 시작하게 된다.<sup>39)</sup>

### 3. 머독의 일본사 서술 재평가와 이순신-넬슨 담론

#### 머독의 일본사 서술에 대한 재평가

머독의 일본사 서술이 ‘진정한 역사 서술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37) 이 글은 한반도에서 일본과 러시아 간에 벌어지던 라이벌 구도의 다툼과 일본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James Murdoch, “Japan and Russia in the Far East,” *The North American Review*, Vol. 170, No. 522(1900), pp. 609–633을 참조.

38) 머독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야마가타 이소오에 따르면 머독은 ‘역사서술에 집중하기 위해’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34–35.

39)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p. 35–36.

것인가?’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상반된 답변이 가능하다. 전문 역사학의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머독의 역사 서술은 역사가가 갖춰야 할 전문성이나 엄밀성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머독의 책이 출간된 직후에 서구에서 발표된 여러 서평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2차 자료를 인용해오는 과정에서 내용의 확인이나 주석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sup>40)</sup> 동시대의 일본 역사가들의 중요한 선행 연구들은 거의 살펴보지 못했으며,<sup>41)</sup> 문화사와 제도사에 취약하여 주제들을 단편적인 서술로만 처리한 경우도 많았다.<sup>42)</sup>

그러나 역사학이 ‘전문화’되는 시점을 빨라야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식의 역사학이 자리 잡는 19세기 중반 이후, 그리고 전문 역사가들이 역사의 영역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을 20세기 이후라고 봤을 때,<sup>43)</sup> 20세기 초에 쓰인 머독의 역사 서술을 전문성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직 역사학의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이 성행하던 이 시절 머독은 많은 오리엔탈리스트들이 보여줬던 동양에 대한 편견이 가득 담긴 역사 서술들보다는 훨씬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글을 쓰고자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특별한 재능인 다양한 언어 구사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당시에 유럽에서 출판되었던 거의 모든 일본 관련 자료들을 비교·대조하였고, 이와 동시에 일본의 1차 사료들을 직접 참고하여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다.<sup>44)</sup> 그랬기에 머독의 책이 오랜 세월동안 서양

40) K. Asakawa, “A History of Japan. Volume I.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 D. by James Murdoch,”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6. No. 3(1911), p. 633.

41) Asakawa, “A History of Japan. Volume I.,” p. 633.

42) K. Asakawa, “A History of Japan. By James Murdoch. Volume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Revised and edited by Joseph H. Longford, D. Litt.,”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33, No. 1 (1927), p. 140.

43) 설혜심, 「학문의 분화와 통섭」, 『학림』 제32집 (2011), p. 104; 임상우, 「과학적 역사학과 국가주의 역사서술」, 『역사학보』 제224집 (2014), pp. 86-87.

44) W. E. Griffis,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1542-1651) by James Murdoch; Isoh Yamagata,” *The*

에서 일본의 역사와 관련한 가장 신빙성 있고 권위 있는 텍스트로 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45)</sup> 머독의 『일본의 역사』는 지금의 시점에서 살펴봐도 상당히 정교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어떤 독자들이 접근하여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만큼 평이하게 쓰였다.

그리고 이러한 머독의 일본사 저술 활동과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야마가타 이소오와의 만남을 빼놓을 수 없다. 이소오는 그에게 영어를 배웠던 제자였던 동시에, 머독이 초창기 일본사 저술을 할 때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그는 일제 강점기 통감부의 영문 기관지였던 『서울 프레스』(*The Seoul Press*)에 1909년 제2대 사장 겸 주필로 취임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다.<sup>46)</sup> 이런 점에서 만약 이소오가 머독이 일본 자료를 다룰 때 보조 역할을 했다면 김주식의 서술처럼 머독의 역사 서술이 일본 편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sup>47)</sup> 또한 머독의 역사 서술 가운데 ‘고대’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일본 측의 입장에서 서술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일본에 천연두가 전파된 원인을 신라에서 찾는다고거나,<sup>48)</sup> 임나일본부를 실재했던 것처럼 서술하는 등<sup>49)</sup>의 문제는 머독이 일본의 사료에 의존했다는 한계로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머독이

---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 No. 4 (1904), p. 802.

45) Asakawa, "A History of Japan. By James Murdoch. Volume III.," p. 139.

46) 이 『서울 프레스』는 영국인 베델(E. T. Bethell)이 발간하던 『대한매일신보』(*Korea Daily News*)에 대항하고, 서구 여러 나라에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창간한 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조선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책자나 팸플릿을 발행하여 통감부와 총독부의 입장을 홍보했다. 정진석, 「제국의 황혼 ‘100년전 우리는」 [175] 통감부 기관지 ‘서울프레스」, 『조선일보』 (2010. 5. 5.) (접속일: 2018. 5. 10.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4/201005040252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4/2010050402522.html))

47)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p. 15.

48)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D. Vol. I* (Yokohama: Kelly & Walsh, Ltd., 1910), p. 192.

49)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 p. 35.

일본사를 작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 이소오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머독의 저술 전체가 일본에 편향된 역사 서술로 인식되는 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sup>50)</sup>

먼저 첫째로, 머독이 이소오를 제자로서 상당히 아꼈고 이소오 역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머독이 이소오가 갖고 있던 제국주의적이고 극우주의적인 성향에 동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소오가 일본 극우주의의 입장에서 제국의 엘리트로 성장하여 훗날 해외에 대한 일제의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sup>51)</sup> 머독은 사회주의에 동조하며 실제로 파라과이에서 사회주의 공동체 건설에까지 참여했던 인물이었다.<sup>52)</sup> 그런 머독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 때 이소오와의 사제 관계와 그로 인해 받은 도움만으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sup>53)</sup>

50) 현재 국내에는 머독이 일본사 서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마가타 이소오가 공동 집필자로서 자료 수집과 집필 과정에 도움을 줬고, 그로 인해 일본 편향적인 역사서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지대학교도서관 한국관련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 「<A History of Japan> 해제」 (접속일: 2018. 1.10. URL: [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성웅 이순신-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서울: 용화출판사, 2005), p. 21.

51) 야마가타 이소오(1869~1959)는 1909년 통감부 기관지 『서울 프레스』의 제2대 사장에 취임해 1923년까지 재직하며 총독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1923년 사이토 총독에게 ‘조선통치의 과거, 현재 및 장래’라는 제목의 조선통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6집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1916년(병진년) 1월 1일 토요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접속일: 2019. 1. 14., URL: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a\\_030r\\_0010\\_0010\\_0010](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a_030r_0010_0010_0010)).

52)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29.

53) 시슨스는 머독이 직접 쓴 글을 인용하며 그가 귀족 계층, 착취, 제국 등의 개념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머독이 쓴 글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의 순수한 중국인 도시이자, 정부를 표면상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blood-sucking) 헛된 짓을 하고 있는 소수의 유럽인 정착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다. (...) 동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완고한 보수주의자이자 지독하게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의 감정적, 심정적으로는

둘째로, 머독이 역사를 서술할 때 이소오의 영향력하에서 일본의 입장에 편향된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머독이 일본 측 사료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이소오가 개입한 것이 아니며, 도쿄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한 제3의 인물인 무라카와 켄코(Murakawa Kenko)의 도움이 있었다. 즉, 일본 사료를 선별하는 역할은 역사 전공자인 켄코가 담당했고, 영문학자이기도 했던 이소오는 단지 그 일본 사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역할만을 맡았던 것이다. 때문에 머독의 일본사 서술에서 이소오의 역할은 자료의 수집이나 선별과 같은 작업이 아닌, 번역이나 지도 정리 작업 등과 같은 부수적인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sup>54)</sup>

셋째로 머독이 참고한 자료가 대부분 일본 자료였다는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sup>55)</sup> 머독이 역사 서술에 활용했던 자료는 비단 일본의 사료만은 아니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5개월 동안 영국 박물관에서 수집한 서양에서 작성된 일본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어 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호머 베잘렐 헐버트의 『한국사』(*The History of Korea*)도 포함되었다. 머독은 헐버트의 책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전체 문단을 그대로 인용해올 정도로 헐버트의 글을 신뢰하고 많이 차용했는데, 한국에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고 고종이 임명한 조선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헐버트의 글을 ‘일본 편향적’인 자료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56)</sup>

---

귀족이거나 혹은 귀족인 체 하는 사람들이다.”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15.

54)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Kobe: The office of the “Chronicle”, 1903), pp. v-vi; D. C. S. Sissons, “James Murdoch,” p. 39.

55)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p. 15.

56) 헐버트는 언어학자이자 역사학자로서 한국사를 서술할 때 지명, 인명들을 현대와 거의 차이가 없는 로마자 표기법을 통해 정확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동국통감』, 『동사강요』와 같은 공식 사료들을 살펴보고 기타 민간 사료들까지 교차 검토하여 날카로운 사료 비판을 하기도 했다. 헐버트의 역사 서술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 머독이 일본의 사료나 다른 유럽인의 사료에만 집중했다면 머독 이전에 이순신에 대한 기록을 남긴 오리엔탈리스트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liot Griffis, 1843-1928)가 그랬던 것처럼 이순신의 국적을 오해하거나 그의 이름을 일본어 발음에 가깝게 리신신(Rhisinsin)으로 표기했을 수도 있었다.<sup>57)</sup> 하지만 머독은 한국어학자이기도 했던 헐버트의 책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이순신과 임진왜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다.<sup>58)</sup>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거의 60페이지에 달하는 「12장 임진왜란(the Korean War)」을 다루면서 조선의 지명(地名)과 인명(人名)들을 모두 정확하게 한글 발음으로 로마자 표기를 하고, 부가적으로 괄호 속에만 일본식 발음을 표기했다는 점이다.<sup>59)</sup> 이는 머독이 『일본의 역사』를 단지 일본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서술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료들을 선별하고 판단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역사 서술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sup>60)</sup> 그리고 12장에서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

석영달, 「세계 속의 충무공 읽기-호머 헐버트의 이순신 관련 서술들을 중심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제3호(2016), pp. 144-150을 참고.

- 57) 심지어 그리피스는 이순신을 명나라의 제독(The Chinese admiral)로 서술했다. W.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2), p. 134.
- 58) 훗날 머독의 책을 인용했던 벨러드는 이순신의 성과 이름을 착각하여 Yi-sun이라고 표현했지만, 헐버트를 인용했던 머독의 원작에서는 이순신의 성과 이름이 정확히 구별되어 'Admiral Yi'라고 표기되었다. 이와 관련한 헐버트의 한국어 표기에 대해서는 석영달, 「세계 속의 충무공 읽기-호머 헐버트의 이순신 관련 서술들을 중심으로」, pp. 140-141, 144-147를 참조.
- 59) 예를 들어 김해는 Kim-hai(Kinkai)로, 임진강의 경우 'Imjin(Rinshin) river'로, 이덕형의 경우 Yi Dok-hyung(Ri Toku-kei)로 한글 로마자 표기 이후 괄호 속에 일본어 발음 표기를 했다. 머독의 책에서 임진왜란을 서술하는 부분은 Murdoch, "Chapter XII - The Korean War,"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p. 302-359를 참조할 것.
- 60) 심지어 머독은 헐버트의 서술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의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다.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p.

부분은 인종주의자에 가까웠던 머독이 조선인 이순신의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여러 차례 칭찬하고, 심지어 그를 영국의 해군 영웅 넬슨(Nelson)과 비교하며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이순신 제독은 도망가는 다수의 적군을 차단하였고, 살아남은 이들은 부산(Fusan)으로 도망가기 바빴다. 노량에서의 힘겨운 전투에서 일본 함정 다수를 나포하거나 격침시킨 이후 그는 적에 의해서도 존경을 받게 되었다.<sup>61)</sup>

②이것은 정말로 눈부신 시작이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더 위대한 성취들의 전조에 불과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순신 제독은 히데요시 진영에서 수립한 전략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있었고, 이에 전라도 남서쪽으로 물러나 고속 기동이 가능한 함정들로 이 지역으로부터 동쪽 해안 전체를 경비하도록 했다.<sup>62)</sup>

③일본군은 패배로 잃은 지역을 결코 다시 되찾을 수 없었는데, 이순신 제독이 일본 본토로부터의 증원군 파견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순신 제독이 활약한 이래 한반도 전체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sup>63)</sup>

④[정유재란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은 아마도 조선 수군이 5년 전에 그랬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조선 수군은 넬슨과 같은 용감한 뱃사람(seaman)에 의해 지휘되었다.<sup>64)</sup>

과연 머독이 이순신에 대해 이렇게까지 서술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337, 338, 342.

61)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 335.

62)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 336.

63)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 339.

64)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p. 355.

머독의 이순신 담론<sup>65)</sup>

머독의 역사 서술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는 것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일본의 역사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등장과 그의 조선 침략 활동은 분명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서술함에 있어 이순신이라는 인물도 결코 생략할 수 없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순신을 영국의 영웅 ‘넬슨’과 비교한다는 것은 동양에 대해 우생학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견해를 보여 왔던 머독이라는 인물의 표현으로 보기에 다소 어색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머독에게 무한한 편의와 환대를 보여줬던 일본인들에게 그들을 패퇴시킨 장수인 이순신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가 아무리 균형 잡힌 서술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라도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이런 의문은 머독이 참고한 자료들에 포함되어 있는 근대 초 일본에서 성행했던 ‘넬슨 담론’과 관계가 있다. 일본은 1868년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근대 국가로 전환하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이 메이지 유신의 주된 목표는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들을 모방하여 다양한 개혁을 추구하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1869년 7월 근대식 해군을 창설하였는데, 이때 모델로 삼았던 대상이 바로 영국 해군이었다. 이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Tōgō Heihachirō)를 비롯한 여러 일본의 해군훈련생들이 영국으로 수년간 유학을 가기도 했다.<sup>66)</sup>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다양한 서양의 역사, 특히 전쟁사와 관련된 서적들이 일본에 유입되는데, 이때에도 섬나라이면서 해군 위

65) 이 부분은 ‘일본에서의 이순신 인식’에 대해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 김준배의 논문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의 2장을 주로 참고하였다.

66) 정의, 「근대 일본의 서구승배와 국수주의-메이지 유신부터 청일전쟁까지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제27호 (2014. 12.), pp. 290-291.

주의 국가로서 세계에 제국을 건설한 영국의 역사 관련 서적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그 중 특히 넬슨은 그 서적들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웅이었다. 이런 넬슨의 영웅담은 곧 일본 내에서 일종의 넬슨 붐(Boom)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새로 편성한 일본 해군이 세계 최강의 영국 해군과 같이 부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었다.<sup>67)</sup>

한편 넬슨 담론의 성행과 함께 일본 내에서는 나폴레옹의 영웅담도 성행하고 있었다. 비록 트라팔가 해전(1805)에서 넬슨에게 저지당하긴 했지만, 유럽 전역을 호령했던 서양의 인물인 나폴레옹은 일본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다.<sup>68)</sup>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일본인들은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일본의 나폴레옹’을 찾았는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인물들과 비교할만한 했던 역사 속 인물은 히데요시였다.<sup>69)</sup> 일본인들에게 영국 침공에 실패했지만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인물인 나폴레옹과 조선을 침략하려다 실패했던 히데요시를 비교하는 것은 그를 세계사적인 영웅으로 만드는 것처럼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sup>70)</sup>

여기서 문제는 히데요시를 패하게 만들었던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였다. 앞서 살펴본 넬슨과 나폴레옹 영웅담의 성행, 그리고 나폴레옹과 히데요시 간의 유비는 ‘이순신-넬슨’이라는 연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다만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일본 내에서 과연 트라팔가 해전의 최종 승리자인 ‘넬슨’의 타이틀을 조선의 이순신에게 부여하고, 또 수용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1890년대 다양한 일본 문헌들에서 먼저 ‘이순신-넬슨’

67)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 240.

68)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 241.

69) 김광옥, 「근대 일본의 豊臣秀吉·임진왜란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제64집 (2007), pp. 214-215.

70)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 241.

담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저널리스트 가와사키 시잔(川崎紫山)이 쓴 『일본백걸전(日本百傑傳)』,<sup>71)</sup> 외교관 출신 오다기리 마스노스케(小田切万寿之助)가 저술한 『조선이순신전(朝鮮李舜臣傳)』,<sup>72)</sup> 같은 해 소라 겐자부로(曾良鉉三郎)가 발간한 『해국(海國)』<sup>73)</sup> 등에는 히데요시와 나폴레옹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이순신을 ‘조선의 넬슨’이라고 칭하는 서술들이 나타난다.<sup>74)</sup> 그리고 1890년대에 일본 내에서 이러한 묘사가 이뤄진 것은 단순히 히데요시를 나폴레옹에 비교하기 위한 유비 관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서양에 대한 열망, 혹은 서양에 대한 경쟁심’과 같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근세 이후 일본에서의 이순신 인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는 김준배는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라는 논문에서 ‘서양에 대한 열망과 경쟁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경쟁해야 했던 일본에게 ‘해군의 역할’과 ‘서양에 대한 자신감’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서양을 하나의 모범이자 따라잡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던 일본에게는

71) 川崎紫山, 『日本百傑傳』 第6編 (博文館, 1893), p. 67.

72) 柴山尚則, 「朝鮮李舜臣伝 : 文祿征韓水師始末」, 『偕行社記事』 82号 附録 (1892), p. 42;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조선이순신전』의 저자를 ‘시바야마 나오노리(柴山尚則)’로 표시하고 있고, 국내·외의 연구들에서 이 책의 저자를 지목함에 있어 나오노리와 함께 ‘석향생(惜香生)’이라는 인물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김준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선이순신전』의 저자는 오다기리 마스노스케이며, 석향생의 ‘석향(惜香)’ 오다기리가 사용했던 호(號)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朝鮮李舜臣伝 : 文祿征韓水師始末” (접속일: 2019. 1. 17. URL: <http://dl.ndl.go.jp/info:ndljp/pid/900123>); 김준배, 「『朝鮮李舜臣傳』의著述目的に關する一考察 - 小田切万壽之助の『朝鮮』との關連性を中心に-」, 『日本言語文化』 第40輯(2017), pp. 223-227을 참조.

73) 曾良鉉三郎, 『海國』 卷下 (曾良鉉三郎, 1892), p. 131.

74)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p. 243-244.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서양의 넬슨에 견줄만 한 해군 장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안타까운 역사적 상황에서 근대 일본인들에게 서구에 대적할만한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동양의 해군 영웅 이순신이었다. 이는 러일전쟁(1904~1905)을 앞두고 남겨진 여러 기록들에서 일본 해군이 서양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계기나 대상으로 이순신을 내세웠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sup>75)</sup>

머독은 이런 일본 내의 자료들을 참고했기에, 그리고 일본인들 스스로도 그러한 담론들을 어떤 목적에서든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었기에 큰 고민 없이 ‘이순신-넬슨’ 담론을 자신의 역사 서술에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저술 당시 일본에서 성행하던 담론을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많은 오리엔탈리스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글이 서양에서 읽힐 때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서양에 잘 알려진 인물인 넬슨과 나폴레옹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기서 더 주목해 볼 부분은 머독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러한 이순신-넬슨 담론을 책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러일전쟁 이전인 ‘1903년’이라는 시점에 책을 출판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 4. 머독 커넥션: 이순신 해외전파의 연결고리

머독이 이순신-넬슨 담론을 책에 담는 데에 있어 왜 ‘1903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것일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머독의 저서 출판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두 개의 혼동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김주식이 남긴 “머독이 어떻게 2년 뒤에 출판된 험버트의 책을 인용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자. 김주식은 자신의 논문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75)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p. 246-248.

평가」 15페이지에서 각주 14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긴다.<sup>76)</sup>

James Murdoch의 책이 1903년에 그리고 Homer B. Hulbert의 History of Korea가 1905년에 출판되었다. 그런데 한 실례를 들면, Murdoch의 책 p. 335에 있는 인용문은 Hulbert의 책 Vol. I, pp. 376-377에 있는 구절이다. 전자가 2년 늦게 출판된 후자를 어떻게 인용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sup>77)</sup>

여기서 김주식이 제기한 의문은 그가 참고한 헐버트의 책 『한국의 역사』(*The History of Korea, 1905*)<sup>78)</sup>의 출판 시기와 머독의 『일본의 역사』(*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1542-1651), 1903*)의 출판 시기가 2년이나 늦음에도 불구하고 머독이 자신의 책에 헐버트의 책에 담긴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김주식의 헐버트 저술에 대한 추적이 다소 미흡하여 나타난 의문으로 보인다. 헐버트는 1905년에 『한국의 역사』를 서술하기 이전에 이미 1902년 『코리아 리뷰』(*Korea Review*)를 통해 『한국의 역사』에 포함될 많은 내용들을 연재하였다.<sup>79)</sup> 그러므로 머독이 자신의 책 335쪽에서 인용한 헐버트의 글은 『한국의 역사』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코리아 리뷰』 1902년판 11월호에서 발췌하여 인용한 글이다. 실제로 그 부분을 발췌하여 비교하여 보면 두 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머독

76) 이 의문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의 이전 연구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2016), p. 215; 석영달, 「세계 속의 충무공 읽기-호머 헐버트의 이순신 관련 서술들을 중심으로」, pp. 142-143.

77)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p. 15.

78) Homer B. Hulbert, *The History of Korea*, Vol. 1,2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5).

79)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2016), p. 215.

의 책에서 헐버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비견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둔 주된 요인은 그가 직접 발명하고 건조한 특이한 전함 덕분이었다. 이는 거북을 닮았다고 하여 귀선(Kwi-sun) 또는 “거북선(Tortoise Boat)”이라고 불렸다. 거북이 이 함정의 모델을 제공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의 가장 큰 독창성은 거북의 등처럼 철판으로 만들어진 곡선의 갑판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병들과 노잡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점이다. (...) 이런 장점은 [거북선을 적선보다] 두 배나 강력하게 만들어, 적선들은 도망가는 것조차 의미가 없었다. 이 훌륭한 배의 선체가 경상도의 해안인 고성 마을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한다. (...) 그 마을의 주민들은 이순신을 기리며 매년 축제를 벌이는데, 이때 그들은 항구 근처에 배를 띄워 이순신과 그의 ‘거북선’에 경의를 표한다.<sup>80)</sup>

결과적으로 머독은 아직 헐버트가 『한국의 역사』라는 책을 출판하기 전에 그가 『코리아 리뷰』에 실었던 짧은 글까지 참고할 정도로 그가 입수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일본의 역사를 서술했던 것이다.<sup>81)</sup>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한국어학자이자 역사학자이기도 한 헐버트가 한국의 다양한 사료들을 꼼꼼하게 비교·대조하여 작성한 한국사가 머독의 책에 반영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머독의 책은 충실하게 서술된 헐버트의 한국사를 그의 『일본의 역사』에 담아 서양의 더 폭넓은 계층에 알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다.

80) Homer B. Hulbert ed., “Korea History Chapter VII.” *The Korea Review 1902*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2), pp. 520–521;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Kobe: The office of the “Chronicle”, 1903), p. 335.

81) 헐버트는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의 한국지부(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on and Ireland, Korea Branch)의 창설 멤버 중 한 명이었기에, 한국에 방문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은 머독이라도 헐버트나 그의 글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보인다. 이고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정기간행물 『트랜스액션』 탐색적 연구 - 1900-1924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40권 3호 (2017), pp. 228–229.

두 번째로 국내에는 머독이 책을 출판한 순서에 대해서도 혼동이 있었다. 머독은 일본사 3부작을 출판하면서 1, 2, 3권의 순서대로 출판하지는 않았는데, 아래 도표에 삽입된 머독의 책 표지를 살펴보면 2권에 해당하는 책이 1903년, 1권이 1910년, 3권이 1926년에 출판된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책의 표지를 자세히 보면 1903년에 출판된 책에는 ‘2권(Vol. 2)’이라는 표시조차 없다. 이후에 출판된 두 권의 책에만 ‘1권(Vol. 1)’과 ‘3권(Vol. 3)’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는 머독이 일본사를 저술할 때 처음부터 3부작을 기획하지는 않았으며, 2권에 해당하는 첫 번째 책을 출판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1권(Vol. 1)과 3권(Vol. 3)을 기획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p>1903년 출간, 2권에 해당</p>	<p>1910년 출간, 1권 (Vol. 1)</p>	<p>1926년 출간, 3권 (Vol. 3)</p>

<『일본의 역사』 3부작의 각 표지>

국내에서 최초로 머독의 『일본사』 3부작의 출간 순서에 대해 언급한 명지대학교 <서양고서 DB 검색시스템>의 해제에서는 상식적

으로 1권이 먼저 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혹은 김주식과 마찬가지로 헐버트 책과의 인용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서인지 헐버트의 인용문이 담긴 2권에 해당하는 책을 1910년에 출판된 것으로 오인하여 언급하고 있다.<sup>82)</sup> 그러나 위의 표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머독의 책은 분명 2권이 가장 먼저 출판되고, 1권과 3권이 나중에 출판된 것이 맞다. 이에 대해서는 머독의 제자이자 일본의 국민 작가인 나쓰메 소세키가 1911년에 쓴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歴史)』』라는 글에서도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머독] 선생은 약속한대로 요코하마 총영사를 통해서 자신의 저서 『일본역사』를 나에게 우송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아서 약 700여 면에 달하는 두꺼운 책이 얼마 되지 않아 내 손에 들어왔다. **알고 보니 이것은 단지 제1권에 불과했다. 그리고 권말에 메이지 43년(1910) 5월 발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비로소 이 책의 출판순서에 대한 나의 오해를 깨닫게 되었다. 선생은 우리 역사 가운데 포르투갈인이 16세기에 비로소 일본을 발견한 이래 오다, 도요토미, 도쿠가와 세 성을 거쳐 사마바라의 내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이른바 서구와 교류를 시작한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그 부분만을 이미 출간했던 것이다. 따라서 순서상으로 보면 제2권이 맨 처음 간행된 셈이다.** 작년 5월 발행으로 되어 있는 신간은 오히려 제1권에 해당하는 상대(上代) 이후의 역사였다. 마지막 제3권에 해당하는 역사, 곧 17세기 중엽부터 유신의 변혁에 이르기까지의 연혁은 지금도 여전히 저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완성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작년에 나온 제1권과 앞으로 나올 제3권은 선생 혼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아시아 협회'가 이어받아서 간행하게 되었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다.<sup>83)</sup>

82) 머독의 『일본사』의 출간 순서에 대해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한 자료는 명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의 「<A History of Japan> 해제」인데, 해제의 내용 자체는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출간 순서와 관련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다. 그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의 저서 『일본사』는 생애 최대의 역작으로 1권과 2권이 1903년과 1910년에 출간되었다. 마지막 3권은 1926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볼륨의 번호와 출간년도가 순서상 일치하지 않아 많은 관련 연구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명지대학교도서관 한국관련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 「<A History of Japan> 해제」 (접속일: 2019. 1. 10. URL: [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

이는 머독이 일본사 서술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시기의 역사를 가장 먼저 다룰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결과라고 짐작된다. 머독이 언어적인 장벽 없이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시기는 유럽의 자료들이 가장 풍부하고, 또 유럽의 시장에 잘 팔릴 것 같은 ‘일본이 서양과 처음으로 교류하던 시기’였을 것이다. 이런 고민과 함께 아마 머독은 ‘초창기 해외 교류의 세기(1542-1651)’라는 부제목과 함께 16-17세기에 해당하는 일본사 책을 가장 먼저 저술하고 출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2권이 다루고 있는 시기와 출판의 시점이 바로 필자가 주목하려는 부분이다. 즉, 머독이 임진왜란을 포함하는 16-17세기라는 시기의 역사를 ‘1903년’에 출판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러일전쟁(1904~1905) 이후, 특히 쓰시마 해전(1905년) 이후 ‘도고’라는 일본을 대표할 만한 해군 장교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하는 담론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일본 해군에서는 열강 가운데 하나였던 러시아 해군을 제압하고 러일 전쟁의 최종 승리를 가져온 ‘도고 헤이하치로’가 그들의 상징이자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해군은 더 이상 서양에 대한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 굳이 과거의 인물인 이순신을 소환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서양에 대한 승리를 이뤄낸 도고가 있었다. 때문에 도고의 등장 이후에는 일본의 서적에서 ‘넬슨’과의 비교가 이순신보다는 도고에게 좀 더 집중된다. 소세키가 러일 전쟁 직후인 1905년에 작성한 「전후 문학계의 추세」라는 글과 1911년에 작성한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歴史)』」의 일부를 살펴보자.

① 아마토 정신은 진실로 자각과 자신에서 나온 커다란 외침으로 변했다. 이와 동시에 같은 일본이라고 말하더라도 말하는 의미는 마찬가지로이지만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 사람의 기분이 고양되어서 저쪽도

83) 나츠메 소세키 지음, 황지현 옮김,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歴史)』」, 『나츠메 소세키 문명론』 (서울: 소명출판, 2004), pp. 317-318.

인간이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기분이 들게 되었다. 넬슨 제독이 위대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도고(東郷) 대장(大將)도 그 이상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러한 자신과 자각을 확장해 가면, 그 반항은 모든 방면에 파급될 것이다.<sup>84)</sup>

- 「전후 문학계의 추세」(1905)

② 겨우 5척의 페리 함대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던 우리들이 일본해[동해]의 해전에서 트라팔가 이후 최대의 승리를 얻었던 것에 마음이 설렸던 것이다.<sup>85)</sup>

-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歷史)』」(1911)

소세키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에 나타난 ‘넬슨과 비견할 수 있는 도고’, ‘트라팔가 해전과 비견할 수 있는 쓰시마 해전’과 같은 담론은 점차 이순신과 관련한 담론들을 대체해갔다.<sup>86)</sup> 이제 ‘동양의 넬슨’이라는 타이틀은 주로 도고에게 주어졌으며, 이순신과 넬슨 비교 담론은 과거에 비해서 축소되어갔다.<sup>87)</sup> 그리고 이런 일본 내의 담론 변화는 1903년에 출판된 머독의 『일본의 역사』 2권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보여준다.

만약에 머독이 1903년에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시기를 담은 2권을 출판하는 대신에, 고대부터의 일본의 역사에 해당하는 1권이나 근대 일본의 역사를 담은 3권을 먼저 출판하고 그 이후에 2권을 출판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2권이 출판되는 시점이 최소 러

---

84) 인용문 내에서 ‘도고(東郷) 대장(大將)’의 경우 번역자가 ‘동쪽 나라의 대장’이라고 번역한 것을 필자가 윤상인의 연구를 참고하여 임의로 수정하였으며, 굵은 글씨도 필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나츠메 소세키 지음, 황지헌 옮김, 「전후 문학계의 추세」, 『나츠메 소세키 문명론』(서울: 소명출판, 2004), p. 273; 윤상인, 「일본 ‘국민’ 작가 나츠메 소세키와 제국주의」, 『역사비평』 통권 48호(1999), p. 245.

85) 인용문 내의 굵은 글씨는 필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나츠메 소세키,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歷史)』」 p. 320.

86)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p. 249-251.

87)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pp. 252-253.

일전쟁이 끝난 1905년 이후, 혹은 실제로 1권이 출판되었던 1910년 이후였다면 과연 그의 저술에서 임진왜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순신-넬슨’ 담론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었을까?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다소 무의미한 가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독이 생애 처음으로 자신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줬던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정치적 지형이나 학계 내의 반응이 ‘이순신-넬슨’ 담론보다는 ‘도고-넬슨’ 담론을 추종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면 그런 분위기의 변화를 책에 반영하게 되지 않았을까?

러일전쟁이 끝나고 10년이 가까이 지난 1915년에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의 한국지부(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on and Ireland, Korea Branch)에서 간행했던 『트랜스액션』(*Transactions*)에 실린 글을 살펴보자.

① 16세기 일본의 조선 침략은 형편없는 실패였다. 일본의 니플레옹이라고 불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의 끝없는 야심을 만족시키려는 동기에서 그것에 착수했다.<sup>88)</sup>

② 일본군은 또한 조선 의병들에게 대단히 많이 당했다. 그리고 그들은[일본군은] 특히 조선의 위대한 제독 이순신에 의해 어려움에 처했다. 이순신은 일본군으로부터 제해권을 빼앗고 그들의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대개 일본군이 조선군과 명나라 군을 제압했다.

③ 히데요시 사후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국내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에 온힘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일본의 니플레옹이 사망함으로써 일본이 혼란한 상태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sup>89)</sup>

이 글은 머독의 제자이자, 머독의 초창기 일본사 저술에서 일본

88) Yamagata Iso,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6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4 Part 2(1912), p. 2.

89) Iso,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6th Century," p. 5.

사료의 번역 역할을 맡았던 이소오가 1915년에 작성한 글이다. 이소오의 글에서는 히데요시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본의 나폴레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순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넬슨’을 붙이지 않는다. 과거 도고 등장 이전에는 일본 내에서 ‘이순신-넬슨’ 담론이 일본 내에 대단히 성행하고 있었으며 히데요시를 나폴레옹에 비유할 때면 다들 자연스럽게 이순신-넬슨의 비유가 사용되었던 것에 반해, 도고의 등장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던 것이다.

그러나 머독은 도고가 러일 전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이전인 1903년에 자신의 책에서 이미 ‘이순신-넬슨’ 담론과 ‘히데요시-나폴레옹’ 담론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었다.

①[정유재란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은 아마도 조선 수군이 5년 전에 그랬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조선 수군은 **넬슨과 같은 용감한 뱃사람(seaman)**에 의해 지휘되었다.<sup>90)</sup>

②당시 일본에는 1815년과 1850년 사이에 프랑스에 존재했던 **나폴레옹 전설만큼이나 강력한 히데요시 전설**이 있었다.<sup>91)</sup>

이러한 머독의 임진왜란과 이순신과 관련 서술은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George Alexander Ballard)라는 영국의 해군 중장(中將, vice admiral)이 1921년에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sup>92)</sup>이

90)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1542-1651)* (Kobe: The office of the “Chronicle”, 1903), p. 355;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2016), p. 215.

91) Murdoch,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p. 449.

92) George A. Ballard,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London: John Murray, 1921)을 참조.

라는 책을 저술할 때 그대로 인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책에서 벨러드는 머독이 이순신-넬슨 비교를 1차례 사용했던 반면에, 그 비교를 7차례나 사용하면서 임진왜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1903년 머독의 이순신-넬슨 비교가 1920년대의 벨러드의 책에서도 그대로, 어쩌면 전보다 더 강하게 이어지게 된 것이다.<sup>93)</sup> 벨러드는 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초기 일본사 서술은 머독의 책에 대부분 의존하였는데, 자신의 책 서문에서 머독의 역사 서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17세기 이전의 일본의 사건들과 관련한 정보들은 머독의 글에 크게 기대고 있다. 머독의 상세하고 유익한 역사는,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원사료를 직접 보고 편찬한 것으로서 [내가] 일본의 연대기에서 중요한 챕터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때 특히 유용했다. 그 중요한 챕터들이란 쿠빌라이 칸(Kublai Khan)의 4,500척의 대함대의 침몰이나, 16세기에 일본이 조선 및 중국과 벌인 엄청난 전투를 의미한다. 그 전투[임진왜란]에서 일본 해군과 육군의 작전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영국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들이 하찮게 보일 정도의 스케일로 수행했다.<sup>94)</sup>

이렇게 머독의 책에 영향을 받은 벨러드의 책은 임진왜란을 30페이지 가까이 다루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이순신의 존재를 알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sup>95)</sup> 결과적으로 이순신이 세계적으로

93) 벨러드가 임진왜란을 설명하면서 ‘이순신-넬슨’ 담론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필자의 선행 연구를 참고.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 (2016), p. 211-218.

94) George A. Ballard,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p. vi.

95)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이 갖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로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해당 서평들은 출판 다음 해인 1922년부터 1923년까지 영국과 미국의 학술지, 신문 등을 통해 꾸준히 나타나면서 책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Quincy Wright,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6, no. 3 (1922), pp. 504-505; J. F. Steiner, “The Influence of

알려짐에 있어 머독의 역할은 헐버트의 자세하고 정확한 한국사 서술과, 서양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영국의 해군 중장이라는 지위의 벨러드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다.

## 5. 나가며

본 논문은 오랫동안 국내의 학계에서 소외되어왔던 제임스 머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일본사 저술이 이순신의 해외 전파 과정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머독의 생애와 그의 일본사 저술의 의미는 지금껏 국내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먼저 제임스 머독은 자신의 본국인 스코틀랜드를 떠나 삶의 터전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으로 옮기면서 부인과의 불화를 포함한 복잡한 삶의 굴곡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연한 계기로 일본의 역사를 『일본의 역사』(*A History of Japan*) 1,2,3권으로 남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3권 중 2권에서는 일본의 16-17세기의 역사, 즉 임진왜란과 이순신과 관련한 역사를 포함한 시기를 다루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역사를 그냥 서술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8, no. 3 (1922), pp. 344-346; E. T. Williams,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37, no. 4 (1922), pp. 699-702; C. W. Bishop, “The Sea in the History of Japan,” *Geographical Review* 13, no. 1 (1923), pp. 151-152; *The Spectator*, January 21, “Book Review,” 1922, p. 85; *The Saturday Review*, “Book Review,” November 5, 1921, p. 538를 참고.

‘이순신-넬슨’ 비교 담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비교 담론은 비단 머독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미 1890년대부터 일본에서 성행하던 것이었다. 19세기 말 일본은 서양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동양의 해군 대표 장수로 이순신의 전설적인 역사를 활용하고자 했으며, 그 맥락에서 일본 내에 ‘이순신-넬슨’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 담론의 파급력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05년 쓰시마 해전을 통해 러시아를 제압한 영웅 도고 헤이하치로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일본에서 굳이 이순신을 ‘동양의 넬슨’으로 전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1905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도고를 서술할 때 ‘동양의 넬슨’이라는 비유를 주로 사용하고, 이순신으로부터는 그러한 비유를 서서히 거두어갔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머독은 일본 내에서 이러한 담론의 변화가 있기 전, 즉 도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며 아직 ‘이순신-넬슨’ 비교 담론의 성행이 절정에 달하던 시점인 1901-1903년에 책을 저술하고 출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 저술된 머독의 책이 단 한 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3부작에 달하는 책으로 저술되어 서양으로 전파되었고,<sup>96)</sup> 그의 책을 인용한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책이 더욱 파급력 있게 소비되면서 서양에는 ‘이순신-넬슨’이라는 비교 구

96) 머독의 책에 대한 서평이 각주 40, 42, 44번에 소개된 3개의 서평 이외에도 『영국 역사 리뷰』(*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저널』(*Journal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등에 더 실려 있으며, 책의 첫 번째 출판 이후 3부작까지 출판되었고 머독이 일찍 사망하지 않았다면 4권까지 출판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머독의 책이 영미권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판매량을 보였으리라 짐작된다. J. H. Gubbins, “Reviews of Books: *A History of Japan from the Origins to A. D. 1542*. By James Murdoch.,”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26, No. 102 (1911), pp. 358-360;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 History of Japan. Vol.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Journal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5 (1926), pp. 255-256; Murdoch, *A History of Japan Vol. III*, p. xviii.

도가 삭제되지 않은 채로 널리 퍼지게 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머독의 책은 일본의 자료만을 다룬 편향된 역사가 아니라, 험버트의 충실한 한국사 서술을 포함한 다양한 서양의 자료들을 함께 종합, 분석하여 다룬 역사 서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제임스 머독은 이순신의 해외 전과 과정이나, ‘서양인이 바라본 이순신’이라는 주제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될, 오히려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인물이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것은 국내에서 이순신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졌으나, 그 관심이 특정한 분야와 목적에만 갇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과거 민족주의 역사학을 넘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역사학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원고투고일 : 2018.10.6., 심사수정일 : 2019.2.1., 게재확정일 : 2019.2.11.)

주제어 : 제임스 머독, 『일본의 역사』, 임진왜란, 이순신-넬슨, 히데요시-나폴레옹, 도고 헤이하치로, 호머 베잘렐 험버트,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

## <참 고 문 헌>

### 1. 1차 사료

- Ballard, George A., *The Influence of the Sea on the Political History of Japan* (London: John Murray, 1921).
- Clement, Ernest W., *A Handbook of Modern Japan* (Chicago: A. C. McClurg & Co., 1913).
- Griffis, W. E.,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82).
- Hulbert, Homer B., "Korea History Chapter VII.," *The Korea Review 1902*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2).
- Hulbert, Homer B., *The History of Korea, Vol. 1,2*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5).
- Murdoch, James, "Japan and Russia in the Far East," *The North American Review*, Vol. 170, No. 522 (1900).
- Murdoch, James,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1542-1651)* (Kobe: The office of the "Chronicle", 1903).
- Murdoch, James, *A History of Japan: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D. Vol. I* (Yokohama: Kelly & Walsh, Ltd., 1910).
- Murdoch, James, *A History of Japan Vol.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26).
- Yamagata Iso(山縣五十雄), "Japanese-Korean Relation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6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4 Part 2 (1912).
- 川崎紫山, 『日本百傑傳』第6編 (博文館, 1893).
- DOI: <https://doi.org/10.11501/778544>

柴山尚則, 「朝鮮李舜臣伝 : 文祿征韓水師始末」, 『偕行社記事』 82号 附録 (1892).

DOI: <https://doi.org/10.11501/900123>

曾良鉉三郎, 『海国』 券下 (曾良鉉三郎, 1892).

DOI: <https://doi.org/10.11501/842842>

## 2. 2차 사료

Asakawa, K., “A History of Japan. Volume I. From the Origins to the Arrival of the Portuguese in 1542 A. D. by James Murdoch,”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6. No. 3 (1911).

DOI: <https://doi.org/10.2307/1834866>

Asakawa, K., “A History of Japan. By James Murdoch. Volume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Revised and edited by Joseph H. Longford, D. Litt.,”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33, No. 1 (1927).

DOI: <https://doi.org/10.2307/1838140>

Griffis, W. E., “A History of Japan during the Century of Early Foreign Intercourse (1542–1651) by James Murdoch; Isoh Yamagata,”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 No. 4 (1904).

DOI: <https://doi.org/10.2307/1834112>

Gubbins, J. H., “Reviews of Books: A History of Japan from the Origins to A. D. 1542. By James Murdoch.,”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26, No. 102 (1911).

DOI: <https://doi.org/10.1093/ehr/xxvi.cii.358>

Sissons, D. C. S., “James Murdoch(1856–1921) – Historian, Teacher and Much Else Besides,”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2 (1987).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A History of Japan. Vol. III. The Tokugawa Epoch, 1652–1868,” *Journal of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5 (1926).

DOI: <https://doi.org/10.2307/3015283>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와 평가」, 『해양문화재』 제4호 (2011).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서구의 연구와 평가」, 『해양평론』 (2011).

김준배, 「근대 일본 이순신(李舜臣)·넬슨(Nelson) 비교 담론의 등장과 변화 -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제38집 (2017).

UCI: <http://uci.or.kr/G704-001690.2017..38.010>

김준배, 「『朝鮮李舜臣傳』の著述目的に關する一考察 - 小田切万壽之助の『朝鮮』との關連性を中心に-」, 『日本言語文化』第40輯 (2017).

노영구, 「[영웅만들기]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 『역사비평』 통권69호 (2004).

UCI: <http://uci.or.kr/G704-000293.2004..69.005>

석영달, 「세계 4대 해전'의 근거에 대한 고찰 - 국내의 '세계 4대 해전' 담론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군사』 제101호 (2016).

DOI: <https://doi.org/10.29212/mh.2016..101.273>

석영달, 「1920년대 초 영국 해군 장교의 일본사 서술 속 이순신 읽기-조지 알렉산더 벨러드의 『해양이 일본 정치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55집 (2016).

UCI: <http://uci.or.kr/G704-001395.2016..55.004>

석영달, 「세계 속의 충무공 읽기-호머 헐버트의 이순신 관련 서술들을 중심으로」,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제3호 (2016).

설혜심, 「학문의 분화와 통섭」, 『학림』 제32집 (2011).

윤상인, 「일본 '국민' 작가 나쓰메 소세키와 제국주의」, 『역사비평』 통권 48호 (1999).

이고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정기간행물 『트랜스액션』 탐색적 연구 - 1900-1924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40권 3호 (2017).

DOI: <https://doi.org/10.25024/ksq.40.3.201709.225>

임상우, 「'과학적' 역사학과 국가주의 역사서술」, 『역사학보』 제224집 (2014).

DOI: <https://doi.org/10.16912/khr.2014.12.224.85>

정의, 「근대 일본의 서구숭배와 국수주의-메이지 유신부터 청일전쟁까지  
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제27호 (2014. 12.).

UCI : G704-001748.2014..27.002

조덕현, 「미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순신 제독」, 『이순신연구논총』 통권  
제27호 (2017).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성웅 이순신-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서울: 용화출판사, 2005).

나즈메 소세키 지음, 황지헌 옮김, 「전후 문학계의 추세」, 『나즈메 소세키  
문명론』 (서울: 소명출판, 2004).

나즈메 소세키 지음, 황지헌 옮김, 「머독 선생의 『일본역사(日本歴史)』」, 『나  
즈메 소세키 문명론』 (서울: 소명출판, 2004).

杉山環, 「James Murdoch-1-書誌的研究」, 『岡山商大論叢』 18 (1983).

杉山環, 「James Murdoch-2-書誌的研究」, 『岡山商大論叢』 19 (1983).

平川祐弘, 『漱石の師マードック先生』 (講談社学術文庫, 1984).

### 3. 기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6집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1916년(병진년) 1월 1일 토요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접속일: 2019. 1. 14., URL: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a\\_030r\\_0010\\_0010\\_0010](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a_030r_0010_0010_0010)).

명지대학교도서관 한국관련 서양고서DB 검색시스템, 「<A History of  
Japan> 해제」 (접속일: 2019. 1. 10. URL: [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http://www.e-coreana.or.kr/classic/fractionate_se_04_popup.jsp?book_id=AC_ENG_0515&vol_id=01&lang_flag=e&cmd=haeje)).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朝鮮李舜臣伝 : 文祿征韓水師始末」 (접  
속일: 2019. 1. 17. URL: <http://dl.ndl.go.jp/info:ndljp/pid/900123>).

정진석, 「[제국의 황혼 '100년전 우리는'] [175] 통감부 기관지 '서울프레스」,  
『조선일보』 (2010. 5. 5.) (접속일: 2018. 5. 10.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4/201005040252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04/2010050402522.html)).

<Abstract>

Propagating the Image of Admiral Yi Sun-shin to the Western World: *A History of Japan* by James Murdoch, Which is the book of playing the Role of connecting link.

Seok, Yeong Dal

Homer Bezaleel Hulbert and George Alexander Ballard have been noticed as the two main figures in the propagation of the image of Admiral Yi Sun-shin to the West. Hulbert was a ‘Koreaphile’ who introduced Admiral Yi to the Western world. Ballard was a high-ranking Royal Navy officer who favorably compared Admiral Yi to Admiral Nelson and otherwise touted his accomplishments. However, there is a missing link in the propagation of the image of Admiral Yi to the West between the efforts of Hulbert and Ballard. That link is ‘James Murdoch.’

This study examined Murdoch who has long been marginalized in Korean academia even though his book on Japanese history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the propagation of the image of Admiral Yi abroad. Murdoch faced many difficulties in his life. After much wandering around the world, he finally settled down in Japan where he wrote *A History of Japan*, his three-volume masterpiece on Japanese history. The second volume included 16th century Japanese history and so discussed the Imjin War in which Japan invaded Korea and in which the legend of Admiral Yi began.

What is particularly interesting about this work is that it also draws the comparison between Admiral Yi and Admiral Nelson. This comparison did not originate with Murdoch, but actually arose from Japanese sources in the 1890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Japanese wanted the power of the Japanese navy to surpass that of Western navies. They appropriated the legendary history of Admiral Yi in pursuit of this goal.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comparison between Admiral Yi and Admiral Nelson arose.

However, this comparison did not last long because of the performance of Tōgō Heihachirō in the Battle of Tsushima (1905). In this battle, Tōgō

soundly defeated the Russian navy, causing him to become a source of pride in Japan, so the Japanese had no further need to compare Admiral Yi to Admiral Nelson. However, Murdoch's history was published in 1903 before the Tōgō had achieved his famous victory, a time when the comparison between Admiral Yi and Admiral Nelson was still prevalent. Murdoch wrote about this comparison because it was so popular at the time and Ballard quoted from Murdoch's history. It was through this process that the image of Admiral Yi was propagated to the Western world more broadly.

Key words: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Yi Sun-shin(Yi Sun-sin)-Nelson, Hideyosi- Napoleon, Tōgō Heihachirō, Homer Bezaleel Hulbert, George Alexander Ballard.